스위스 스키 스토리.

초급부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까지 모두를 설레게 하는 스위스 스키 슬로프

2014 년 올림픽 다운힐 금메달 수상자도 가이드 동행하는 엥겔베르그 Big 5
세살때부터 스키를 탄 인기 강사와 체험하는 마테호른 스키 투어
프리라이더들의 천국에서 도전해 보는 수직 하강
스키 타다 맛보는 산장 식당의 별미들
샴페인 즐길 수 있는 스키 곤돌라도 특별해

스위스정부관광청은 2017 년, '다시, 자연의 품으로(Back to Nature)'라는 테마에 맞게 스위스 자연의 품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며 보다 의미있고 가치있는 여행을 할 수 있는 체험거리 700 가지를 소개하고, 이 체험거리를 보다 쉽게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을 도입하기도 했다. 스위스에서만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들은 스위스의 자연을 보다 가까이, 그 품 안으로 들어가 고스란히 체험해 볼 수 있어 특별하다. 그 중, 겨울의 자연을 온 몸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스키는 스위스 겨울을 가장 스위스답게 만들어 주는 스노우 스포츠다. 알프스의 산 봉우리 꼭대기에서 폭삭한 파우더 스노우를 흩날리며 그림같은 겨울 풍경 속을 가로지를 수 있어, 스위스 사람들은 물론 전 세계에서 그 마법같은 순간에 중독된 많은 이들이 스위스를 찾고 있다. 그 중 스키와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진 두 스토리를 소개한다.

1. 엥겔베르그(Engelberg)

자유의 산, 엥겔베르그를 온 몸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 프리라이더들에게 엥겔베르그는 서퍼들에게 하와이같은 존재다. 더 한결같고 더 나은 컨디션을 보유한 산을 찾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게다가 새로 생긴 "Big 5" 덕분에 최고의 실력을 보유한 스키어들 조차도 도전거리의 부족에 대해 불평할 수 없게 되었다.

풍성한 파우더가 흩뿌리는 엥겔베르그에 대해 2014 년 올림픽 다운힐 우승자이자 엥겔베르그가 고향인 도미니끄 기신(Dominique Gisin)은 세계 최고의 기량을 소유한 선수다. 그녀는 "이 곳의 컨디션은 프리라이더들에게 완벽한 드림이죠."라고 말한다. 월드컵 레이싱에서 은퇴한 뒤 그녀는 겨울이 가까워 오자 단 하나밖에 생각할 수 없다. 새로운 티틀리스 엑스프레스(Titlis Express) 케이블카를 타고 해발고도 3000m 위로 올라 딥 파우더 속 "Big 5"를 즐겨보는 일이다. 중앙 스위스 뿐 아니라, 전 유럽이 이 다섯개의 루트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일이라고 도미니끄는 말한다.

사실, 티틀리스는 중앙 스위스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일 뿐 아니라, 북서쪽에 자리한 알프스 최초의 봉우리로, "새하얀 금"이라고 불릴 정도의 파우더 스노우가 풍성하다. 스키 시즌은 11 월 초부터 다음해 5 월 말까지 이어진다. 안정적인 설질을 유지하는 프리라이딩이 가능한 스키장 중 취리히 공항에서 엥겔베르그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곳은 없다. 단 90 분이면 엥겔베르그에 도착할 수 있고, 봉우리 꼭대기까지는 30 분이면 된다.

5 일간 이어지는 5 개의 다운힐 코스는 엥겔베르그의 하이라이트다. 실망이라는 단어는 엥겔베르그의 단어장에 없다. 도미니끄는 "아마도 슈타인탤리(Steintäli)가 좋은 워밍업이 되어줄 거에요."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술츨리(Sulzli)에서는 이미 숙련된 스킬과 컨디션이 절실히 필요하게 될거에요. 다음날까지 완벽한 프리라이딩을 즐기려면 말이죠. 라우브(Laub) 절벽은 1000m 나 되는 낭떠러진데 순수한 기쁨을 선사해 주죠."라고 덧붙인다. 하지만 가장 큰 난코스는 아직이다. 바로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슈타인베르그(Steinberg) 빙하와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왕관의 보석격인 갈티베르그(Galtiberg)에서의 와일드한 라이딩이다. 스펙타클한 횡단코스를 포함해서 말이다.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다. “사실 이게 가장 곤란한 부분이죠.”라고 도미니끄는 심각한 표정이 된다. “만약 백컨트리 스키를 즐기고 싶다면 혼자 스키를 가서는 안됩니다. 길을 잃기 십상이거든요.” 토박이로 이곳의 지형을 샅샅이 아는 그녀조차 매번 투어 전에 모든 크레바스와 갑작스런 기후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완벽히 습득한다.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로 “Big 5”에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조언한다. 최고의 선수인 그녀조차도 로컬 가이드와 함께 투어에 나선다. “가이드들은 기쁨은 최대로, 위험은 최소로 보장해 주죠.” 도미니끄 기신은 게스트 카드가 있으면 무료인 프리라이드 트레이닝에 참여해 볼 것을 권한다. 1 월부터 3 월까지 운영되는 스노우 & 세이프티 데이즈(Snow & Safety Days) 프로그램이다.

2. 체르마트(Zermatt)

스키 중 휴식마저도 하이라이트가 되는 곳이 있다. 360km 에 달하는 완벽하게 마감된 스키런을 질주하는 내내 마터호른(Matterhorn)이 항상 시야에 들어오고, 미식 레스토랑이 곳곳에 자리한 체르마트다. 부담없이 가볍게 스키를 즐기기 원하는 이들이라면 로컬 스키 강사에게 모든 것을 맡겨보아도 좋다.

체르마트에서는 데미안 프란첸(Demian Franzen)과 함께 슬로프에서의 완벽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데미안은 세 살때부터 눈밭을 질주해 왔다. 체르마트 태생의 호주계 청년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일을 하며 지낸다. 그의 열정을 직업으로 바꾼 것이다. 과거에 스키 레이서이자 스키 강사 월드 챔피언에서 동메달을 딴 32 세의 데미안은 강습 참석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무척 좋다. 1 년에 슬로프에서 300 일이나 보낼 정도로 열성이다.

런던에서 온 안나(Anna)는 오늘 그에게 강습 예약을 신청해 두었다. 리프트가 오픈하기도 전에 만난 그들은 함께 최고의 하루를 보낼 생각에 설렌다. 오전 7 시 30 분이 되면 마테호른 글래시어 파라다이스(Matterhorn Glacier Paradise) 행 케이블카 역에는 부지런한 스키어들이 모여든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다운힐을 차지할 수 있는 퍼스트 트랙(First Track)용 곤돌라를 기다리는 것이다.

고도가 1m 높아질 때마다 기대도 함께 상승한다. 해발고도 2,932m 인 트로케너 슈테그(Trockener Steg)에서는 슬로프 마감 작업을 하는 스태프들이 다운힐 런에 대한 기초 강습을 한다. 산 전체와 마테호른 뷰를 독차지하는 것만같은 기분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푸리(Furi)까지 이어지는 하강 코스는 도전적이고, 1,200m 의 수직 하강 코스 뒤에는 처음으로 체력이 소진되기 시작한다. 마테호른 글래시어 파라다이스에서 풍성한 아침식사를 즐기면 제격인 시간이다.

매서운 바깥바람은 별 것 아니다. 오르고 내리고, 다시 또 다시 반복된다.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운힐 코스가 안나와 데미안을 기다리고 있다. 이탈리아의 체르비니아(Cervinia)로 향하는 1,800m 의 수직 하강 코스가 바로 그것이다. 플랑 메종(Plan Maison)에서는 따뜻하고 향기 좋은 카푸치노 한 잔을 하기 좋다. 달콤한 인생이여! 테스타 그리지아(Testa Grigia)에서 둘은 스위스로 다시 돌아간다. 킬로미터가 점차 누적된다. 트로케너 슈테그(Trockener Steg), 푸르그(Furgg), 슈바르츠제(Schwarzsee)로 여정이 이어진다.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푸리에서 미리 예약에 둔 곤돌라가 둘을 기다리고 있다. 가죽 좌석과 샴페인 한 잔을 즐기며 기분 좋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스키를 좀 더 즐긴 뒤, 슈타펠알프(Stafelalp)에서 늦은 점심을 즐긴다. 데미안의 인사이더 팁에 의하면 발레(Valais) 주 향토음식인 공기 중에 말린 소고기를 곁들여 먹는 스파게티가 훌륭하다. 햇살 가득한 테라스에 놓인 털로 마감한 의자가 손님들에게 여유로운 시간을 선사한다. 그 다음은? 블라텐(Blatten)에서 오리지널 후우스카피(Huuskafi) 술 한잔을 맛보거나, 체르마트에 있는 바, 한누스슈탈(Hennustall)에서 아프레 스키(après-ski: 스키 뒤풀이)를 즐겨 보거나, 체르마트 마을까지 스키를 이어가 보아도 좋다.

체르마트에서의 다양한 체험거리는 마테호른만큼 높으니 말이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